

세대에 따른 직업 관련 사회정체성의 사회심리학적 의미^{*}

최유정** · 최셋별*** · 이명진****

이 연구는 사회정체성 개념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회성원들이 직업 관련 정체성들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균열의 지점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정체성의 세 차원인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을 살펴본 결과, 직업 관련 정체성에 있어서는 세대 차이보다는 합의가 우세하였다. 총 44개 정체성 중 세대차가 유의미한 것은 장관, 국회의원, 비행기 조종사, 농부의 평가성과, 대기업 사장, 교수, 의사, 간호사, 연예인, 무당, 실업자의 권력성뿐이다. 지도자 및 전문직에서는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에서 50대가 다양한 정체성들을 일관되게 높이 평가한 반면, 30대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으며, 20대와 40대는 다분히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력성에서는 2, 30대와 4, 50대로 나뉘어 젊은 세대가 이 범주 정체성들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일반 직군의 경우에도 2, 30대의 평가 점수가 다소 낮는데 그 정도는 평가성에서 더욱 뚜렷하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2, 30대가 스님에 대해, 4, 50대가 목사에게 대해 호의적이다. 지도자 및 전문직에 대한 세대별 태도를 분석해본 결과, 이 정체성들의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를 높게 인정하는 50대에 비해 40대, 30대, 20대로 오면서 평균값의 하락과 분포의 집중 경향이 심화된다. 30대는 평가성 차원에서, 20대는 권력성 차원에서 이 범주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핵심단어: 세대, 세대 차이, 사회정체성, 직업, 감정조절이론, 어의차이척도

I. 서론

모든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로의 대체'는 필수적이고 이전 세대의 가치나 행동양식이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 다양한 변이를 이룬다. 이에 세대 차이는 한 사회의 존재에 일종의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변동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큰 사회일수록 세대별 이질적인 경험으로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8-B00039)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 cyj1003@hot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 choseta@ewha.ac.kr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교신저자) | leemj@korea.ac.kr

인한 불일치의 스펙트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¹⁾ 국제비교 연구에서 ‘가장 큰 세대차를 보이는 사회’로 규정되었을 정도로(Inglehart, 1997), 한국사회는 구성원의 생활세계가 이중, 삼중으로 분화되고 각 세대가 경험하는 역사적 시간의 간격이 증폭되는 독특한 궤적을 밟아왔다. 이에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세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관적, 내면적 시간을 달리하는 세대들 간의 반목 가능성은 잠재적인 위협인자로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이 주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2000년대 들어 다양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세대별 차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 2002년 대통령 탄핵과 촛불시위, 월드컵 응원전, 광우병 파동, 노무현 대통령 서거, FTA 비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 등 다양한 사안들을 둘러싸고 심각한 세대 갈등의 양상이 표출되었다. 이에 ‘세대 간 화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절감하게 되었다. 다른 사고와 생활방식, 정서의 담지자인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직원,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세대 차이가 학문적, 실천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세대 차이가 크다면 과연 어떤 평가 기준에서 그러한가? 세대 차이 혹은 특정 세대의 실재를 파악하려 할 때 적합한 전략 내지는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세대 차이에 대한 설명과 경험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것이 허상이라서가 아니라 세대 집단들의 특성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접근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 구조나 가치관, 행위 유형의 차이나 관심 연령대의 특수성을 다루어 온 기존의 세대 연구들이 통일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이한 조사도구와 연구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한다. 측정 항목에 따라 세대 차이의 정도가 확대, 또는 축소 해석되거나, 단일 가치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대의 비판이나 이질성의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인식의 분화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파형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구체적인 괴리의 지점과 양상을 명확히 찾아낼 수 있는 방법과 이론적 준거들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세대관계의 실재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사회정체성” 개념을 활용해 각 세대

1) 세대 형성의 기본이 되는 인구구성의 변화의 속도 역시 빠르다. 종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횡적으로는 다양한 이민자의 유입이 중요한 요인이다(김두섭·이명진, 2007; 이상림, 2009; Kim, Kim and Han, 2009; Jun and Choi, 2010).

가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복합적 실체를 조명하는 것이다. 사회정체성이란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악할 때 각기 개별적인 개체가 아닌 특정한 사회 집단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으로 보면서 집단적,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대상의 사회적 역할을 정형화해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acKinnon and Langford, 1994). 내·외집단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 개인이 자신과 타인, 사회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감정적 근거로서 사회적 역할 및 관계에 기반한 상호 역학이 구현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다양한 사회정체성에 대한 각 세대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세대 역동성의 지형을 규명하고 그 특수한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세대차의 실체를 사회정체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기준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다양함을 발현하는 집합적 주체로서의 세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신'을 통한 관계맺음의 근간이 되는 직업 관련 정체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공동체적 삶 속에서 사회성원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양상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세대별 합의와 갈등의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포착해 내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II.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이 연구의 의의

1. 기존 세대연구의 흐름

세대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60, 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과 부적응 등의 혼란을 설명해내야 할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였다. 격변기에 발생한 사회 문제들의 원인을 사회구조보다 규범의 붕괴, 아노미적 혼동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는 세대 논의의 핵심적 화두로 자리 잡게 되었다(손인수, 1978). 방점이 '변화'에 놓였던 만큼, 연구의 관심은 주로 전통적인 질서를 대표하는 세대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세대의 첨예한 대립에 집중되어 있었다. 많은 연구가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비교, 분석하는 접근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렇게 신·구세대의 이분법에 근거한 논의들은 세대차를 부각시키고, 그 차이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전제한다

는 점에서 다분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었다.

80년대에는 6, 70년대의 성장 제일주의 경제정책이 몰고 온 모순들이 수면위로 부상함에 따라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는가 하면, 거시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세대 연구의 폭이 한층 확대되는 전기를 맞이한다.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시도들은 사회심리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구조나 사회문화적 변수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전회되었다(김재은, 1987; 임희섭, 1984). 세대가 연령 집단으로서 본격적으로 세분화되어 조명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안청시·최일섭, 1987; 임희섭, 1984). 10여년의 간격을 기준으로 하는 세대 구분법의 활용은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각시키던 기존 관점에서 보다 객관화된 시선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령 집단적 성격 이외에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의 차이를 세대 구분의 근거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요인들에 대한 확장된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세대 연구의 국지화 경향도 발견된다. 기업(이경의, 1982)이나 학교(신인수, 1985), 또는 가족(이동원, 1989; 한남제, 1989) 내에서의 가치관이나 태도, 또는 문화 차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세대 갈등이 표출되는 양식을 추론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해진 것이다. 세대에 따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에도 이어졌다(나은영·민경환, 1998; 한규석·신수진, 1999).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특수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새로운 조류를 이루었다. 1993년을 전후해 서태지와 아이들, X세대 또는 신세대, 오렌지족 등이 매스컴에 의해 부각되자, 4.19세대나 유신세대와 같이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벌여쓰던 이전 세대와 달리 탈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부상한 청소년 세대의 실체와 그들의 하위문화를 다루는 학문적 성과물 또한 빠르게 축적되어 갔다(안영노, 1994; 주은우, 1994; 박재홍, 1995; 박재홍, 2010). 이들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실용적 목표 하에 핵심 연구대상과의 상호 관계와 역할 구조 속에서 다른 세대 집단을 파악하는 '탄력적인' 세대 구분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청소년들의 소비 및 생활 문화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이들의 삶을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성해 낸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정보접근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위계질서를 교란시키고 새로운 권력 구도를 창출하는 점이 강조되었으며(박명진, 1995; 조동성, 1995; 최선희, 1999),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는 가정(김주엽, 1993; 함인희, 1996), 학교(이인규, 1999), 기업(조동성, 1995) 등의 장을 배경으로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의

사소통 장벽과 행동 양식의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생활 문화에 집중되어 있던 연구 영역이 점차 정치로 확대되어 한층 특성화된 주제들이 세대 담론의 전면에 부상하기에 이른다. 세대 논의가 문화적 차이를 다룬 경우와(이기형, 2007; 정성호, 2003), 특정 정치 이슈를 둘러싼 세대차를 밝히는 연구들(박병영, 2006; 박명호, 2009; 박재홍, 2005; 신광영, 2009; 윤상철, 2009)로 양분되며 각각에 깊이를 더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2년의 전복(송호근, 2003)'이라 불리는 월드컵 '붉은 악마' 결성과 거리 응원, 노사모와 16대 선거, 탄핵 정국을 둘러싼 대규모 촛불시위 등은 인터넷 참여문화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는 분수령이 되었다(강원택, 2002; 김정훈, 2003; 박길성, 2002; 조대엽, 2002). 또한 인터넷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세대의 현실지향적인 인생관과 즐겁고 풍요로운 인생에 대한 선호,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 개인주의 및 자기 주장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가치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한덕웅·이경선, 2003).

세대에 따른 정치적 성향과 소통 방식의 차이는 쇠고기 파동을 둘러싸고 촉발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의제로 등장한다(박명호, 2009; 윤상철, 2009; 전상진, 2009).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과 20대(이동후, 2009; 차현희, 2007), 386세대(고민희·김창남, 2008; 박병영, 2008) 같은 특정 세대의 정치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재점화되었다.

2. 한국의 세대 문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세대 차이의 지점 및 그 의미: 감성조절이론을 통해 본 사회정체성의 구조

사회정체성 개념은 자신과 환경, 타인을 바라보는 인지체계를 보다 객관적,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사회심리학적 틀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제한적인 인지능력으로 주어진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식 대상을 개별적이고 독립된 개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하여 이해한다. 그 결과 정체성의 상당 부분은 집단 구성원으로 갖게 되는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구조화된 사회정체성은 구성원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교화된 모형으로 작용한다(Kashima, Kashima, Farsides, Kim, Strack, Werth and Yuki, 2004).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집단주의, 관계주의적 특성을 가진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율성을 지닌 개체로서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역할과 관계에 의해 정의되기 쉽기에(김의철·박영신,

2005), 사회정체성의 의미와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정체성이 이렇게 개인이 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행동화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개념 자체가 사회화를 통해 내재화되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의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정체성의 형성과 공유, 제도와 문화의 창출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과정을 이해하려면 사회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며 개인의 인식체계 저변에 작동하는 ‘대상에 대한 공유된 정취(shared sentiments)’, 즉각적인 감성적 평가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체성의 감성적 의미에 대한 과학적 측정을 시도했던 감성조절이론과 그 측정 도구인 ‘어의차이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감정조절이론(Affect Control Theory)에 따르면 인간이 문화와 사회를 넘어서 상징들의 감성적 의미를 구별하는 공통된 인식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틀에 기반한 감정의 차이가 어의적인 차이들을 통해 표현되므로, 이를 척도화하면 측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개발된 측정도구가 어의차이척도다.²⁾ 이 척도를 활용한 경험 연구들은 사회정체성이 사물에 대한 판단적인 감정(선함/악함 또는 좋다/나쁘다)을 나타내는 “평가성(evaluation)”, 사물의 영향력(힘이 있다/없다 또는 크다/작다)의 차원인 “권력성(potency)”, 행동의 경향(빠르다/느리다 또는 활동적/비활동적)이나 속도를 뜻하는 “활동성(activity)”의 세 차원으로 수렴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회정체성의 다차원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었다. 그리고 이 세 영역의 점수는 ‘문맥과 무관’하게 측정된다는 점에서 타문화와의 비교에도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을 갖는다. 이 점을 활용한 국제 비교 조사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과 중국 등 10여 개국에서 이미 정례화되었고, 연구의 대상 지역이나 연구의 초점이 되는 사회 현상들도 확대되는 추세이다(Clore and Pappas, 2007; Heise, 2001, 2002; Heise and Lerner, 2006; Nelson, 2006, 2008; Swell and Heise, 2010; Schroder and School, 2009; Smith, Takanori and Michio, 1994).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들이 세대리는 주제와 관련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회정체성에 대한 감정조절이론의 설명은 사람들이 감성적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특정 역할의 점유자와 그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규범적, 도덕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각각의 정체성에 대한 감성적 반응의 구조와 내용에 범문화적인 상

2) 어의차이척도는 다양한 사회를 대상으로 원어민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물, 달과 같이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는 100개 단어를 제시하고, 각 단어에 대해 제일 먼저 연상되는 특성적 형용사를 적도록 한 후 그 중 가장 많이 등장한 50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다(Osgood, May and Miron, 1975).

관관계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도덕성, 안정성, 일관성을 전제한다. 이 때 일관성과 안정성은 절대적이기보다는 사회에 따라, 또 한 사회 내에서도 일정 정도의 차이를 허용하는 유연한 형태를 띤다. 이때 '세대'는 유동적인 과정 속에 존재하는 사회정체성에 대한 공유된 감정 구조에서 합의와 균열의 지점들을 동시에 포착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감정조절이론이 제시한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의 세 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정체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대별 특수성과 보편성의 실상에 접근하려 한다. 특히 사회정체성의 항목 중 개인적, 사회적 연대성과 권리와 의무 등의 차원에서 개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는 주요 채널이자 공적 차원에서 상호 인식의 준거가 되는 직업 관련 정체성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직업에 대한 내용을 다룰 시 직업관이나 직업 선택 동기에 대한 가치관 조사 같은 사적인 설명에 머물러 온 기존 세대 연구들을 넘어서 직업이라는 정체성이 갖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을 공적 관계 속에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서의 성격에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2) 세대의 기준과 근거

세대 문제를 바라볼 이론적 틀과 대상이 명확해졌다면 세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60, 70년대까지 세대 개념을 조부모-부모-자녀관계와 같이 친족 계보(kinship descent)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본다는 점에서 세대라는 범주를 가계 계승, 내지는 사회 계승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내에서 항렬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는 것(Ryder, 1965; Bengtson, 1975; Acock, 1984)이 당시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후 세대를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특정 시기에 중요한 생활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출생 코호트(cohort)'가 세대 구분의 주요 기제로 등장하게 된다. 칼 만하임(Mannheim, 1952)이 이야기하는 '의식 속에 유사하게 자리잡은 성층화된 경험의 유사성'이 세대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인간 발달 과정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과제 동질적 집단(task-homogeneous cohorts)(Acock, 1984)'으로 보는 입장이 더해지면서 80년대 이후의 세대 연구들은 세대 개념에 '출생 시기'와 공유된 '역사적 문화적 경험', 그리고 '유사한 사고방식과 행위 양식'을 고르게 강조되기 시작한다.

80년대 이후의 주된 세대 구분법은 연령집단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는 동일 연령대에 속하는 개인들이 비슷한 생애주기에 해당된다는 점 이외에도 각각의 생애 단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험의 공유가 고려된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동년배 집단이 성장할 당시 공유한 사회 변동이나 역사 발전 과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10여년의 간격으로 범주화되는 세대의 폭을 좀 더 세밀히 구획 짓고, 각각의 특징적인 가치와 성향을 구분해 내려는 논의들이 발전되기도 했다(황상민·양진영·강영주, 2003).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연령집단에 의한 구분법을 활용하되, 각 세대의 현재 생애주기와 성장기에 경험한 사회문화적 여건에 대한 고려를 통해 그 구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대별 특징을 미시적, 거시적 차원 모두와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표 1>은 2009년도에 진행된 본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세대 구분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이 연구의 세대 구분 기준

출생년도	연령대	청소년기의 경험	현재의 인생주기
1980~1989	20대	정보화 산업의 확산, 인터넷의 보급, 세계화의 심화	성인입문기
1970~1979	30대	문민정부 출범, 정치세대 교체 가속화, 민주화 정착, IMF 경제 위기, 세계화	성인초기 및 안정기
1960~1969	40대	민주화 운동 본격화, 서울올림픽, 기술집약적 산업 발달, 경제적인 고도성장, 통금이나 교복 등 각종 규제 해제	중년기
1950~1959	50대	경제 부흥, 유신헌재와 새마을 운동, 수출 진흥정책, 자본집약적 중화학 공업 발달, 학력수준 상승과 도시화	중년절정기

III. 연구 방법과 절차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59세까지의 성인 남녀 1,28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얻었다. 실사는 (주)한국리서치가 담당했으며, 조사 대상자는 2009년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에 걸쳐 한국리서치가 보유하고 있는, 자발적인 조사 의향을 지닌 2만 여명의 응답자 패널 중 메일보유자 리스트를 정리하고, 정리된 리스트를 연령 및 성별에 맞추어 분류한 후, 2009년 10월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자료를 참고로 연령, 성별 인구 비례로 할당하는 할당표집방법을 통해 선정되었다.³⁾

3) 자발적 피조사 의향을 갖는 응답 패널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이 과다 대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검증 받아 온 패널이며, 가장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60대 이상 응답자를 제외한 표본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조사는 사회정체성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0개의 사회정체성을 제시한 후 응답자들이 각각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의 세 차원에서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차원은 감정조절이론에 근거한 연구 결과들을 감안하여 ‘좋은/나쁜’, ‘권력 있는/권력 없는’, ‘빠른/느린’의 대응 쌍으로 이루어진 5점 만점의 등간 척도로 구성된 어의차이척도를 대표 문항으로 사용해 측정했다. 조사에 포함된 100개의 사회정체성 중 직업과 관련된 44개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사회정체성 전 항목에 걸쳐 세대 간 평균 점수 차이 검증을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응답자 특성

	변수	사례수 (명)	백분율 (%)
연령	만20세 ~ 만29세	317	24.8
	만30세 ~ 만39세	362	28.3
	만40세 ~ 만49세	332	25.9
	만50세 ~ 만59세	269	21.0
성별	남성	632	49.4
	여성	648	50.6
학력	중졸이하	4	0.3
	고등학교졸업	406	31.7
	대학재학 이상	870	68.0
직업	전문직	154	12.0
	관리/사무직	463	36.2
	서비스/판매/영업직	106	8.3
	자영업	86	6.7
	생산/기능직	26	2.0
	학생	100	7.8
	주부	255	19.9
	은퇴/무직	17	1.3
	기타	73	5.7
	월평균 가구소득	99만 원 이하	19
100~199만 원 이하		142	11.1
200~299만 원 이하		273	21.3
300~399만 원 이하		308	24.1
400~499만 원 이하		236	18.4
	500만 원 이상	302	23.6
계		1,280	100.0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직업 관련 정체성의 차원별 점수 분포

직업 관련 정체성들에 대한 차원별 평균 점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정체성들에 대한 가장 직관적, 감정적 판단을 의미하는 “평가성” 차원에서는 숙련공, 요리사, 농부, 비행기 조종사 등의 일반직과 지도자 및 전문직의 범주에 속하는 간호사, 교수, 의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사회 엘리트 대부분이 중위권을 점한 가운데 국회의원과 정치가와 같은 정치 관련 직업이 반사회적 직업보다 나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경우 “우리 관계”의 중요함이 관계문화의 핵심이 되며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평가에 중요하여 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그 중에서도 정치 조직이나 정부기관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가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김의철·박영신, 2005).

‘권력성’을 보면 간호사와 교사를 제외하고 지도자 및 전문직에 속한 정체성들의 평균 점수가 13위까지의 최상위권에 집중 분포해 있다. 대기업 사장이 1위이고, 대통령, 변호사, 검사, 장관, 정치가, 교수, 교장, 의사의 순이다. 일반직군에서는 연예인이, 종교 및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는 목사가, 반사회적 직업에서는 사채업자가 권력성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성에서 최하위권에 모두 속했던 반사회적 직업들의 경우 권력성에서는 평가가 엇갈려서, 범죄자, 도둑, 창녀를 제외한 나머지 정체성들의 순위가 높아졌다. 창녀가 가장 권력 없는 존재로 간주되며, 실업자가 그 다음이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기자와 대기업 사장과 같은 지도자 및 전문직 정체성과 함께, 숙련공, 비행기 조종사 등 다양한 일반직이 상위권에 포진해있다. 종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주부가 상대적으로 빠른 이미지였고, 반사회적 직업 중에서는 사기꾼, 사채업자, 도둑 등의 활동성 점수가 비교적 높다. 대다수의 지도자 및 전문직 관련 정체성들이 중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대통령을 제외한 장관, 정치가, 공무원, 국회의원 등의 행정·정치 관련 정체성은 몇몇 반사회적 직업보다도 느린 이미지이다. 활동성에서 가장 최하점을 기록한 항목은 실업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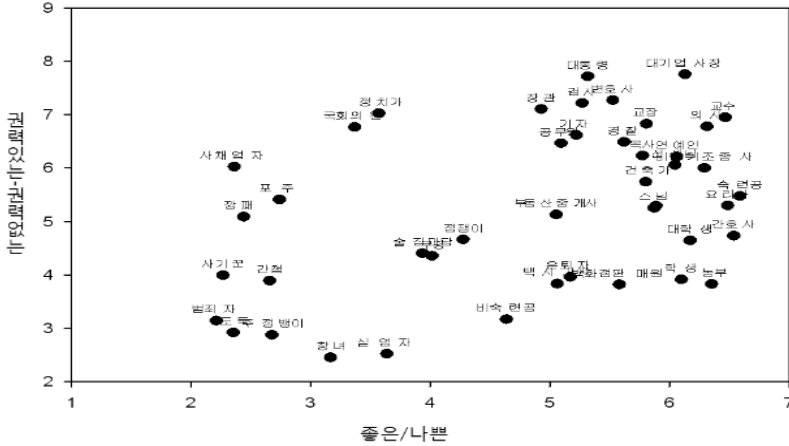
평가성, 권력성, 활동성을 2개씩 교차시켜보면 평가성은 낮으나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는 간첩, 사기꾼, 사채업자, 도둑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체성들의 평가성과 활동성 점수가 대체로 정비례한다. 이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빠른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제 비교 연구들이 사회정체성의 세 차원을 모두 다루되, 구체적인 구조를 설명할 때는 평가성과 권력성 2차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근거를 확인케 하는 부분이다(이명진·심수진·최셋별, 2006). 이 점을 감안해 이 연구 역시 평가성과 권력성의 평균점수 분포를 2차원 평면상에 배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 직업 관련 정체성의 차원별 평균 점수

(단위 : 점)

순위	정체성	평가성	정체성	권력성	정체성	활동성
1	숙련공	6.59	대기업사장	7.75	기자	7.28
2	간호사	6.54	대통령	7.71	숙련공	7.20
3	요리사	6.49	변호사	7.27	비행기 조종사	6.84
4	교수	6.47	검사	7.22	간첩	6.79
5	농부	6.35	장관	7.10	대기업사장	6.64
6	의사	6.32	정치가	7.02	농부	6.57
7	비행기 조종사	6.29	교수	6.95	요리사	6.55
8	대학생	6.17	교장	6.83	택시기사	6.42
9	대기업사장	6.13	의사	6.78	백화점판매원	6.42
10	학생	6.10	국회의원	6.76	컴퓨터 프로그래머	6.42
11	연예인	6.06	기자	6.62	주부	6.41
12	선생님	6.05	경찰	6.49	간호사	6.38
13	주부	5.96	공무원	6.46	사기꾼	6.28
14	컴퓨터 프로그래머	5.89	목사	6.23	사채업자	6.17
15	스님	5.87	연예인	6.21	의사	6.12
16	교장	5.81	선생님	6.06	도둑	6.06
17	건축가	5.80	사채업자	6.02	연예인	6.04
18	목사	5.78	비행기조종사	6.00	경찰	5.98
19	경찰	5.62	건축가	5.74	건축가	5.93
20	백화점판매원	5.58	숙련공	5.47	대통령	5.87
21	변호사	5.53	포주	5.41	부동산중개사	5.86
22	대통령	5.32	주부	5.39	학생	5.82
23	검사	5.27	요리사	5.30	변호사	5.69
24	기자	5.22	컴퓨터 프로그래머	5.29	선생님	5.62
25	은퇴자	5.17	스님	5.25	교수	5.62
26	공무원	5.09	부동산중개사	5.13	검사	5.61
27	택시기사	5.06	깡패	5.09	대학생	5.53
28	부동산중개사	5.06	간호사	4.73	목사	5.27
29	장관	4.93	점쟁이	4.66	교장	5.17
30	비숙련공	4.64	대학생	4.64	술집마담	5.04
31	점쟁이	4.28	술집마담	4.40	무당	4.98
32	무당	4.02	무당	4.35	깡패	4.92
33	술집마담	3.94	사기꾼	3.99	장관	4.87
34	실업자	3.64	은퇴자	3.96	점쟁이	4.80
35	정치가	3.57	학생	3.91	범죄자	4.79
36	국회의원	3.37	간첩	3.89	스님	4.69
37	창녀	3.17	택시기사	3.83	포주	4.69
38	포주	2.74	농부	3.83	은퇴자	4.61
39	간첩	2.66	백화점판매원	3.82	비숙련공	4.56
40	깡패	2.44	비숙련공	3.17	정치가	4.42
41	사채업자	2.36	범죄자	3.14	창녀	4.13
42	도둑	2.35	도둑	2.92	공무원	4.13
43	사기꾼	2.27	실업자	2.52	국회의원	3.68
44	범죄자	2.21	창녀	2.45	실업자	3.51

<그림 2> 직업 관련 정체성의 분포: 평가성과 권력성



<그림 1>을 보면 대통령, 장관, 대기업사장, 변호사, 검사, 교수, 의사, 교장, 경찰, 공무원 등의 지도자 및 전문직과 연예인, 비행기 조종사, 건축가 등의 일반 직업, 목사와 같은 종교 관련 직업이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수,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일반직종에 속하는 정체성은 평가성에서, 대통령, 장관, 검사 등은 권력성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높다. 그에 비해 평가성은 낮으나 권력성에서 높게 평가되는 정체성으로는 정치가, 국회의원, 사채업자가 있다. 대다수의 반사회적 직업들은 두 차원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2. 직업 관련 정체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과 함의

1) 지도자 및 전문직

이제 평가성과 권력성을 기준으로 세대별 직업 관련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먼저 지도자 및 전문직의 경우 “평가성”에서 세대별 그래프 패턴이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 중 간호사, 의사, 교수가 평균값이 높고, 국회의원과 정치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평균값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세대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장관($p < .01$)과 국회의원($p < .05$)이다. 장관의 경우 5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국회의원의 경우 나머지 세대에 비해 50대의 평균 점수가 눈에 띄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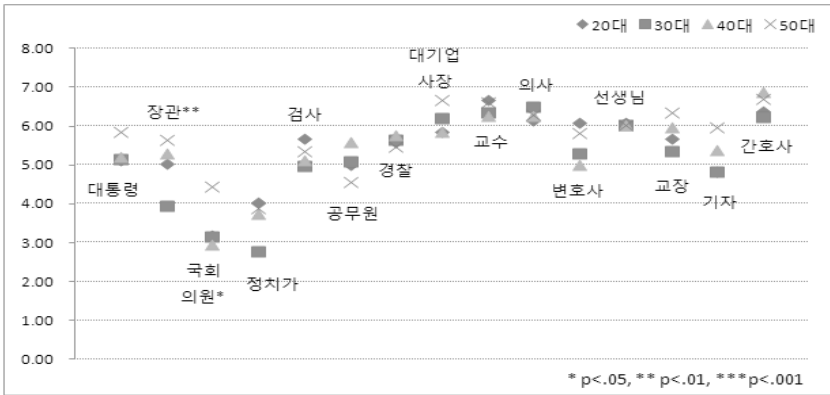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지도자 및 전문직에 대한 50대와 30대의 엇갈린 평가가 평가성에서 나타나는 세대차의 큰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50대는 앞서 살펴 본 장관과 국회의원 뿐 아니라 대통령, 대기업 사장, 교장, 기자 등 정치·행정·경제적으로 지도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다수의 정체성을 다른 세대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평가한다. 50대가 타 세대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경우는 공무원이 유일하다. 50대가 다양한 정체성을 선호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30대는 장관, 교장, 검사, 기자, 정치가, 간호사 등 많은 지도자 및 전문직 정체성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있다. 30대가 다른 세대보다 선호하는 정체성은 의사뿐이다. 이는 신세대라는 이름으로 주목받으며 자율화, 개방화의 수혜자로 성장했던 이들의 차별적 특성이 사회지도층으로 간주되어 온 직업들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황상민·김도환, 2004).

20대와 40대는 그 특징이 덜 명확한 편이나 20대의 경우 교수, 변호사, 검사, 정치가 등을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선호하고, 대기업 사장이나 기사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40대는 공무원, 간호사 같은 안정적 직업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 사장,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가 낮다. 이들은 지도자 및 전문직 관련 정체성들에서 상대적으로 나쁜 이미지로 인식하는 항목들이 선호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인접세대 중 50대보다는 30대와 유사한 면을 보인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장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서도 40대와 50대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오히려 40대가 교장, 장관 등의 항목에서 20대와 함께 중간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대기업 사장에 대해 유사하게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의 공통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 결과는 소위 386세대라고 불리며 변화와 개혁, 권위에 대한 도전을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40대의 독특한 위상이 직업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이전 세대와 단절된 형태로 발현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권력성”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확인된 대기업 사장($p<.05$), 교수($p<.01$), 의사($p<.05$), 간호사($p<.01$)를 제외하면 평가성에 비해서도 세대 차이가 더 적어서, 그래프 상 유사한 지점에 세대별 점수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대기업 사장, 교수, 의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2, 30대가 4, 50대에 비해 이들의 권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기업 사장은 전체 평균 및 2, 30대에서는 권력성 점수 1위를 차지했으나, 4, 50대는 대통령이 더 권력 있는 존재였다. 평가성에서와 같이 교수는 20대가, 의사는 30대가 권력성도 높게 인지했다. 이와 반대로 간호사는 4, 50대에서 상대적으로 권력 있는

존재였다. 평가성에서 50대와 30대의 특징이 두드러졌던 것에 비해 권력성에서의 점수 분포는 2, 30대와 4, 50대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양상이 좀 더 빈번하다.

<그림 3> 지도자 및 전문직: 평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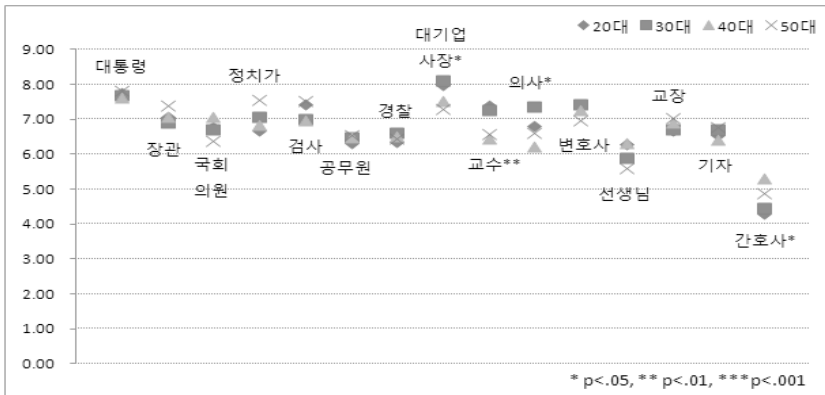


세대별 점수 분포를 보면, 5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평균 점수상 장관, 정치가, 대통령, 검사, 공무원, 교장, 기자 등 정치·행정·교육·언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정체성들의 권력을 타 세대에 비해 높게 평가함으로써 가장 일반적인 관점에서 권력을 이해하는 성향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가 서열, 권위와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였음을 고려할 때(황상민 외, 2003), 50대가 이러한 전통적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장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대통령, 장관, 교장, 기자를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에서 다른 세대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두 차원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다. 이에 비해 40대는 평가성과 마찬가지로 권력성에서도 공무원, 간호사와 같은 안정적 직업을 높게 평가하되 검사, 교수, 의사, 기자 등과 같은 전문직은 다소 권력 없는 존재로 본다. 평가성과 권력성을 종합했을 때 이들의 선호는 전문직보다 안정적인 직업에 치우쳐 있다.

30대는 정치적 지도자들보다 기업 경영자나 의사처럼 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종을 좀 더 권력있게 인식하는 편이다.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에서 의사는 높게 평가되며 장관은 부정적으로 비추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20대는 교수를 제외하고는 타 세대보다 권력성을 높게 평가한 항목이 없다. 서열, 권위와 위계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가치와 문화가 수평적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

으며, 젊은 세대의 경우 권위적 인물이나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나은영·민경환, 1998; 한규석·신수진, 1999; 황상민·김도환, 2004)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단, 이들이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1997년 대학설립자유화로 인해 대학진학률이 고교 졸업자의 80%를 상회할 정도로 학력 인플레이 현상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상당수가 대학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되지 않은 이들의 생애주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4> 지도자 및 전문직: 권력성



2) 일반 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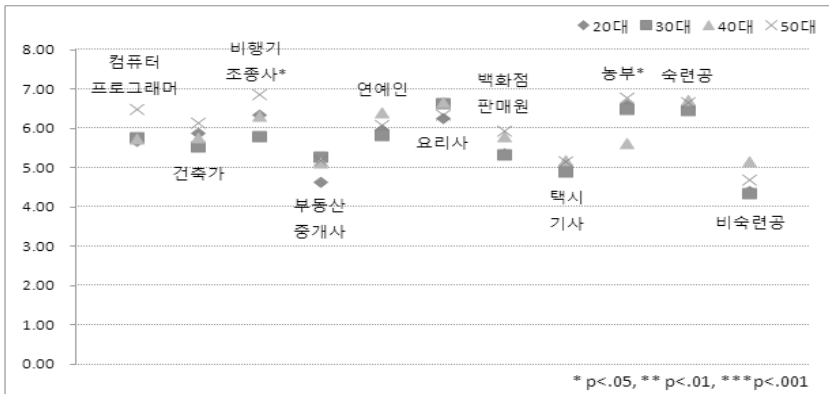
일반 직군의 “평가성” 점수 분포에서는 ‘비행기 조종사(p<.05)’와 ‘농부(p<.05)’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 전체적인 형태나 평균점수 모두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범주 안에서 보면 숙련공과 요리사, 농부 등 대체로 친근한 직업들이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세대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한 항목들을 보면 농부의 경우 4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유독 이 직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행기 조종사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시적인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4, 50대가 이 범주의 직업 정체성들을 다른 세대들보다 선호하는 경우는 많은데 비해, 2, 30대는 이 군에서 특별히 좋게 인식하는 정체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50대는 지도자 및 전문직에서와 같이 일반직에서도 비행기 조종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많은 정체성들을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40대는 택시기사, 숙련공, 비숙련공, 요리사, 연예인을 상

대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인식하고 농부에 대해서만 부정적이다. 특히 40대에서 연예인의 좋은 이미지는 교수, 의사, 선생님, 대기업 사장을 능가한다. 이들은 정치적, 이념적 과잉으로 인해 문화적 욕망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해 문화적 지구화를 처음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조대엽, 2002), 대중문화에 대해, 그리고 그 주역인 연예인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30대의 경우 평가성에서 선호하는 정체성은 부동산 중개사가 유일한 반면 비행기 조종사, 택시기사, 숙련공, 건축가, 비행기 조종사, 연예인, 백화점 판매원, 비숙련공 등 많은 항목들을 타 세대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지도자 및 전문직에 이어 일반 직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태도가 확연하다. 20대는 타 세대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아예 없다.

<그림 5> 일반 직군: 평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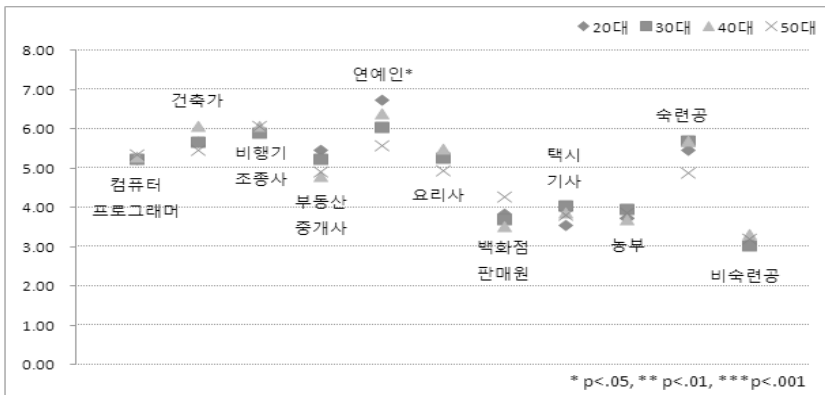


“권력성”에서는 세대차를 보이는 항목이 더 적다. 차이가 검증된 것은 ‘연예인’ 뿐이다(p<.05). 연예인은 일반직 중 가장 높은 권력성 점수를 기록했으며, 50대를 제외한 세대 모두에서 가장 권력 있는 이미지였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강하다가 40대, 30대, 50대로 오면서 그 점수가 점차 낮아진다. 성인이 안정되고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청소년은 연예인같이 인기 있고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 있으나(배규환·이창호, 2009), 대중소비문화의 발달 속에서 자신들의 관심과 욕구를 확장시켜온 20대가 자율적인 세대의식의 일환으로서 연예인을 선호하는데서 더 나아가 이 직업 자체를 권력과 연결시키는 ‘규범적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비행기 조종사, 요리사, 택시기사, 농부, 비숙련공에 대해서는 그래프 상 점수차가 거의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세대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도자 및 전문직의 권력성 점수에서 그러했듯이 일반직에 있어서도 2, 30대와 4, 50대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의 분포가 위계화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경향성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비행기 조종사와 비숙련공이 4, 50대에서 더 권력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가 하면, 부동산 중개사, 농부는 2, 30대에서 더 높은 권력성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그래프 상으로 명확히 판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세대별로 나타나는 대체적인 특성을 정리해보면 50대는 백화점 판매원의 권력성을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평가하지만 연예인이나 기술직의 권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40대는 건축가, 요리사 등을 타 세대보다 권력 있는 존재로 보는 반면, 부동산 중개사, 백화점 판매원, 농부 등의 직업은 낮게 평가한다. 농부는 40대에게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에서 일관되게 부정적 이미지이다. 30대에서는 택시기사, 농부, 숙련공에 대한 평가 점수가 비교적 높고, 20대의 경우 연예인과 부동산 중개사를 다소 높게 평가하며,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림 6> 일반 직군: 권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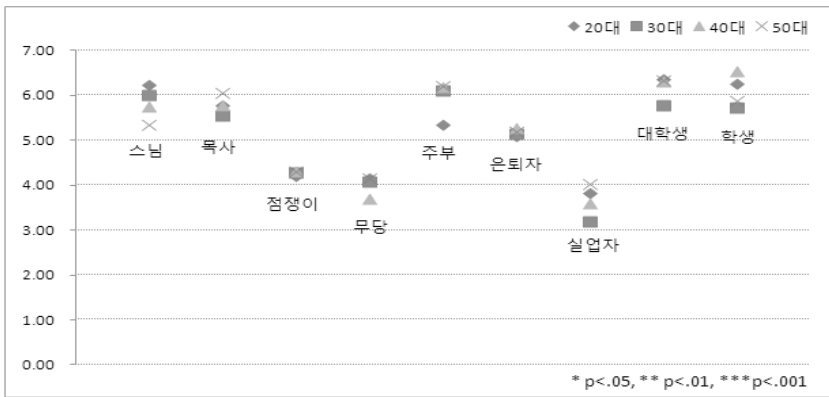


3) 종교 및 비경제활동 인구

종교 및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는 “평가성”에서 유의미한 세대 차이를 보인 항목이 전무하다. 그래프의 경향성을 보면 2, 30대는 스님을, 4, 50대는 목사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50대는 타세대에 비해 목사를 가장 긍

정적으로, 스님을 가장 부정적으로 본다. 주부와 실업자에 대해서도 50대가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40대의 경우 학생을 다른 세대보다는 더 좋은 이미지로 인식하는데 이는 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이들의 생애주기적 위치가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무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또한 40대의 특징이다. 30대는 종교 및 비경제 활동인구에서 다른 세대보다 좋은 이미지로 보는 정체성은 없는 반면, 목사, 실업자, 대학생, 학생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어서 다수의 직업 관련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거부적인 반응을 다시금 보여준다. 20대는 스님과 대학생의 평가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주부를 가장 낮게 생각한다.

<그림 7> 종교 및 비경제활동인구: 평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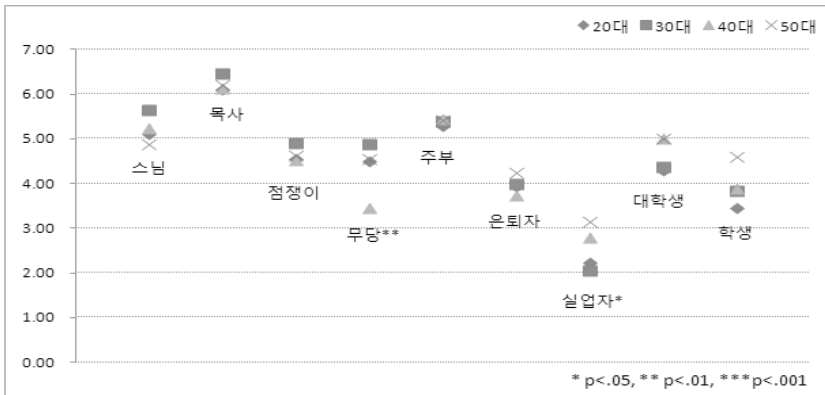


“권력성”에서는 ‘무당(p<.01)’과 ‘실업자(p<.05)’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별 관점이 엇갈린다. 무당은 30대의 긍정적인 태도와 40대의 부정적인 태도가 나뉘는 지점이고, 실업자는 2, 30대에서 더 권력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풍요로운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일자리 부족 및 비정규직의 증대와 같은 악조건을 목격하며 취업과 관련된 어려움에 노출되어온 젊은 세대가 실업자에 더 무력하고 박탈된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세대별로는 50대에서 은퇴자, 실업자, 대학생, 학생에 대한 권력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50대는 자녀 세대인 대학생, 학생의 권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자신들과 유사한 은퇴자, 실업자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이다. 스님에 대한 50대의 부정적인 평가는 권력성에서도 여전하다. 40대는 대학생의 평가성에서 50대와 동일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은퇴자, 무당, 점쟁이 등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30대는 스님, 목사, 점쟁이, 무당을 모두 타 세대에

비해 권력적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실업자에 대해서는 평가성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사회에 진출해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인 30대의 현 상황이 실업자에 대해 부정적인 상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20대의 경우에는 특별히 권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 특히 목사와 자신들의 정체성에 가까운 대학생, 학생 역시 상대적으로 권력 없는 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은퇴자, 실업자, 대학생, 학생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자신들이 처해있는 삶의 조건과 상황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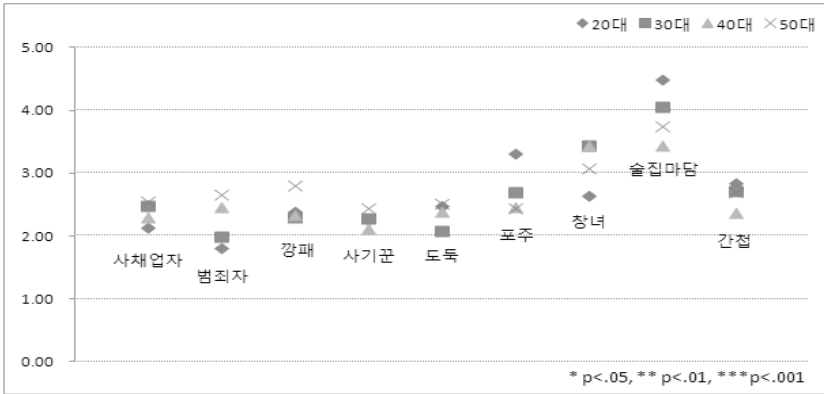
<그림 8> 종교 및 비경제활동인구: 권력성



4) 반사회적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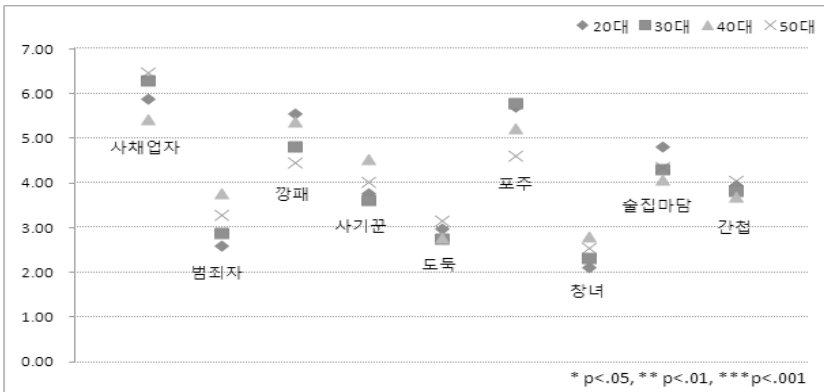
반사회적 직업에 대한 인식에서는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에서 세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나 특별한 패턴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평가성”에서의 부분적인 차이들을 살펴보자면 50대가 사채업자, 범죄자, 깡패, 사기꾼, 도둑 등 다수의 반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포주에 대해서는 50대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3, 40대는 창녀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지만 30대는 깡패와 도둑을, 40대는 사기꾼, 술집마담, 간첩을 더 나쁜 이미지로 인식하는 세부적인 차이도 발견된다. 20대는 포주, 술집마담, 간첩을 타 세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채업자나 범죄자, 창녀는 더 부정적으로 본다. 특히 4, 50대가 알선자에 해당하는 술집마담이나 포주 등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20대는 창녀 자체를 더 나쁜 이미지로 보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9> 반사회적 직업: 평가성



“권력성”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보다 합의의 양상이 뚜렷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보이는 항목은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대체적인 경향성에서는 50대가 사채업자나 도둑을 상대적으로 권력있는 존재로 인식하되 강패와 포주는 다소 낮게 평가한다. 이 중 사채업자, 도둑은 평가성에 비해 권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포주는 양 차원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 대상이다. 40대에서는 범죄자, 사기꾼, 창녀의 권력성을 타 세대에 비해 다소 높게, 사채업자, 술집마담, 간첩은 낮게 인지한다. 30대는 포주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본다. 20대는 강패, 술집 마담을 권력 있는 이미지로 보는 데 비해 범죄자, 창녀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데, 젊은 세대에서 술집마담이나 포주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더 좋고, 창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평가성에서도 유사하게 포착되었던 현상이다.

<그림 10> 반사회적 직업: 권력성



3. 지도자 및 전문직에 대한 세대별 인식의 차이와 그 함의

이제 세대별 차이의 지점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공유된 인식 자체가 사회 변동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지도자 및 전문직에 대한 세대별 인식을 종합해 정리해보도록 한다.

세대별로 평가성과 권력성을 축으로 지도자 및 전문직을 배치해보면, 먼저 50대가 이 범주의 항목 다수를 두 차원 모두에서 고르게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대다수 정체성들이 1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점수대도 다른 세대보다 높은 편이다. 사회적 상층을 이루는 정체성들과 그 가치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5대이고, 이들의 평가성과 권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호 연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유신독재와 국가 주도적 근대화를 통한 고속 성장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며 권위나 사회적 성공에 가치를 두어 온 이들의 특수성과 연계해 이해될 수 있다. 전통과 권위, 위계질서, 명예에 대한 존중을 체화하고 있는 50대가 위계화된 정체성들의 사회적 의미를 더 자연스레 수용하며, 더 나아가 권력의 정도가 좋고 나쁨의 평가로 직결되는 통합된 가치관을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평가성은 낮으나 권력성에서 높게 평가되는 2사분면에는 정치가와 공무원, 국회의원이 놓여있다. 두 점수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 속해 있는 정체성은 없고, 평가성 점수는 높고 권력성은 낮은 4사분면에는 유일하게 간호사가 위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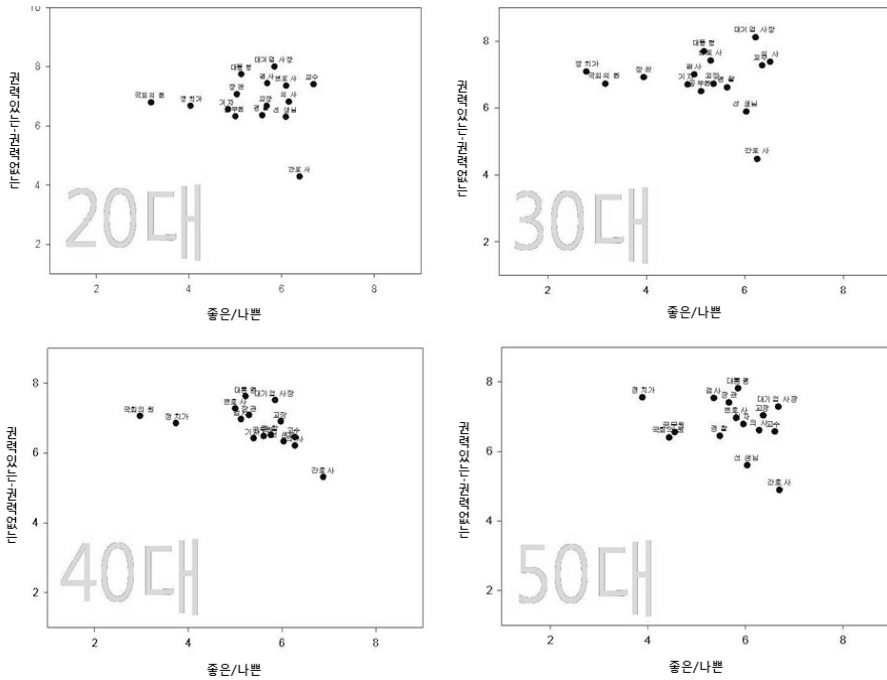
40대에서는 50대의 경우 1사분면에서 고른 산포도를 그렸던 각 항목들의 분포가 두 축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중상위권에 집중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10>을 보면 대통령, 장관, 변호사, 검사 등은 평가성의 평균점 주변에, 교수, 의사, 공무원, 경찰, 교장, 선생님, 기자는 권력성 점수에서 6점을 상회하는 위치에 몰려 있는 형상이 포착된다. 대부분의 정체성이 1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은 50대와 동일하나, 전반적으로 평가성 점수 면에서 하향 이동한 모습이 눈에 띄며, 대통령, 변호사, 장관, 검사, 교수, 의사, 검사, 기자 등 다양한 정체성들의 권력성 점수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진 감이 있다. 50대의 경우 2사분면에 위치했던 공무원의 평가성 점수가 높아져 1사분면에 놓여지고, 4사분면에 위치했던 간호사 역시 1사분면으로 이동하는 등,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도 역시 특징적이다. 권력성이 높는데 비해 직관적 반응의 차원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2사분면에는 국회의원과 정치가가 자리했다. 50대에 비해 지도자 및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경제적 풍요의 시대, 통금이나 교복 등 각종 규제가 해제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정치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해방적인 분위기를 선호하고, 개혁 성향과 권위에 대한 도전성을 내면화해 온 이 집단의 독특한 가치체계(황상민 외, 2003)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40대의 비판적 태도는 이어 살펴볼 30대에 비해 온건한 편이지만 중년기에 접어들어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어느 정도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생애주기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전통적인 위계질서의 담지자인 50대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짓고 있다는 사실로도 의미가 있다.

40대에서 단초를 보인 지도자 및 전문직에 대한 '다른' 인식은 30대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 30대의 경우 대기업 사장, 교수, 의사의 평가성 및 권력성 점수가 높게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50대에서 1사분면에 넓게 배치되었던 대다수 직업 정체성들의 평균값이 평가성과 권력성 양 차원에서 다소 낮아지고 편차 또한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평가성'에서의 낙폭이 커서 대다수 사회정체성에 대한 30대의 직관적 반응이 다른 세대에 비해 훨씬 부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2사분면에 존재하는 정치가, 국회의원의 위상 역시 평가성 면에서 크게 낮아진 상태이며, 장관과 기자가 이 영역에 배치된 것 또한 특이하다. 30대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치 세대교체와 민주화, 세계화가 가속화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방적이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성향이 정치나 행정, 언론, 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정체성들에 대해 부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이들의 권위 역시 타 세대에 비해 낮게 평가하도록 한 것이 아닐지 추론해볼 수 있다.

20대는 전체 정체성들의 배치도가 1사분면의 좌측 하단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각 정체성들의 평가성과 권력성 점수가 모두 타 세대에 비해 다소 낮고 편차는 더욱 줄어든 것이다. 이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정체성이 없고, 대부분 정체성들을 권력성의 큰 차이를 전제하지 않고 개념화한다는 사실은 탈권위지향, 개인지향적인 속성이 발현된 결과로 보인다. 경제적 풍요와 범지구적 문화 공동체를 이루는 세계화의 경향 속에서 사회주의 붕괴와 국내 정치의 안정기를 거친 20대의 집단적 경험이 대중 소비문화의 발달과 욕구의 다원화라는 문화적 매개 변인을 거쳐 다양성과 개방성, 자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지향성'과 권위주의적 인간관계, 전통적 예절이나 격식,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추구하는 '탈권위지향적인 특성'을 형성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박재홍, 1995), 20대의 직업 정체성에 대한 태도 역시 같은 논리 하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단, 이들이 타 세대에 비해 '교수'라는 직업의 권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세대 차이를 반영하기 보다는 이들이 처해있는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현상이기 쉽다.

<그림 11> 세대에 따른 평가성 및 권력성 분포



V. 맺음말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성과 권력성을 두 축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도자 및 전문직과 연예인, 비행기 조종사, 건축가 등의 일반 직업, 목사 같은 종교 관련 직업이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교수, 의사 같은 전문직이나 일반 직종은 평가성에서, 대통령, 장관, 검사 등은 권력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되었다. 평가성은 낮으나 권력성에서 높게 평가된 것은 정치가, 국회의원, 사채업자 등이다. 대다수의 반사회적 직업들은 두 차원 모두에서 하위권을 차지했으나, 실업자는 평가성이, 강패나 포주는 권력성이 다소 높았다.

둘째, 직업 관련 정체성에서는 세대차도 존재하지만 합의를 이루는 부분이

더 많았다. 나와 덕키트(Na and Duckitt, 2003)의 지적처럼 한 사회에는 가치 일치(value consensus)와 가치다양성(value diversity)이 공존하는데, 지도자 및 전문직, 일반 직군, 종교 및 비경제활동인구, 반사회적 직업으로 분류되는 네 개 범주에 대한 세대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에서 가치 다양성보다 가치 일치의 경향이 보다 강했다. 평가성에서는 지도자 및 전문직 범주에서 '장관'과 '국회의원', 일반 직군에서 '비행기 조종사'와 '농부'에 대해서만 세대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권력성에서는 지도자 및 전문직에서 '대기업 사장', '교수', '의사', '간호사'가, 일반 직군에서는 '연예인'이, 그리고 종교 및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는 '무당', '실업자'가 세대차이가 검증된 항목들이다. 반사회적 직업에서는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차이가 확인된 경우, 세대에 따른 규칙성이 발견되기 보다는 대상에 따른 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먼저 지도자 및 전문직 중 장관은 평가성 면에서 5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대에 비해 50대가 가장 긍정적이다. 대기업 사장, 교수, 의사는 젊은 세대에서 더 권력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간호사는 높은 연령대에서 점수가 높았다. 일반 직군에서는 4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유독 농부의 이미지를 나쁘게 보고, 비행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5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연예인의 권력은 20대, 4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종교 및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는 무당의 이미지가 30대에서 가장 좋고, 40대에서 가장 나쁘며, 실업자는 2, 30대에서 더 무력한 존재로 여겨졌다.

셋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평균 점수에서 세대별 경향성이 관찰된다. '지도자 및 전문직' 경우 50대가 평가성과 권력성 모두를 일관되게 높이 평가하는 반면, 30대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두 차원 모두에서 30대와 50대가 전체 경향성을 대표하는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평가성에서는 20대와 40대가 다분히 중간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권력성에서는 2, 30대와 4, 50대로 점수의 분포가 나뉘는 양상이 포착된다. 젊은 세대가 이 범주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것이다. '일반직' 역시 50대와 30대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2, 30대, 4, 50대의 구분에 따른 차이가 유효하다. 이런 경향은 평가성에서 더 확연해서, 2, 30대는 일반 직군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편이다. '종교' 관련해서는 2, 30대가 스님에, 4, 50대가 목사에게 더 호의적이고, 30대는 이 둘의 권력성을 가장 높게 본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태도에는 각 세대의 생애주기 및 발달과업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반사회적 직업'의 경우 5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대별 인식이 세부적으로 엇갈려,

일관된 경향성을 포착해내기가 쉽지 않다. 넷째, 지도자 및 전문직에 대한 세대별 태도를 평가성과 권력성 2차원으로 분석해보면, 50대의 경우 정체성들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하며 1사분면에 넓게 포진되어 있는 반면, 40대의 경우 두 축의 평균값을 상회하는 영역에 집중된 형태로 분포 범위가 좁아지면서 그 평균 또한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30대에서 더욱 강해져서 대기업사장, 교수, 의사를 제외한 정체성들의 평균 점수가 하락하며 분포가 집중되는 구조가 관찰된다. 특히 평가성에서의 하락폭이 명확해서 30대가 지도자 및 전문직 정체성들에 대해 내면화하고 있는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반면 20대에서는 각 정체성들이 1사분면의 좌측 하단에 집중된 상태에서 특히 권력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해 이 범주에 대한 낮은 선호와 수평적 가치관을 보게 한다.

세대 개념에 역사적 과정에의 참여나 공동운명체로서의 연대감을 필연적으로 전제하지 않더라도, 세대가 의식, 태도, 행위 면에서의 유사성과 안정성, 동류의식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박재홍, 2005), 다양한 세대의 공존과 상호작용은 사회 동학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동시대인의 비동시성, 보다 정확하게는 ‘동년배적(Gleichaltrigkeit)이 아닌 것의 동시대적 공존’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것의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기존 세대 연구의 큰 흐름을 주도해온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잠재적인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사회정체성에 대한 세대 간의 평가가 확연한 차이와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기계적인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직업 관련 정체성들에 대한 각 세대의 감정적 반응에 상이함이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는 부분은 소수이고, 세대별 입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엇갈리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틀이라 할 사회정체성에 대해서 소통의 기본 조건인 ‘공통 지반’이 여전히 공고하며, ‘다양성 속의 합의’가 아니라 ‘합의 속의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틀 지우는 주요 메커니즘이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단일한 근대성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이제 균열된 근대성을 인정하고 그 균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에너지를 집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회 운영원리 중 하나인 사회정체성에서 드러나는 세대 간 합의와 다양성의 현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개인의 발달과정 및 사회문화적 경험에 의한 영향력을 분석적으로 해명해내거나, 한 세대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포

합하는 풍부한 설명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발적 피조사 의향을 갖는 사람들이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의 성향이 과다 대표되는 인터넷 조사의 한계가 이 연구에도 제한점으로 남아있음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연구의 응답자의 68%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동질적 특성이 이 연구에서 세대별 성향으로 해석되었을 여지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2) “세대, 이념과 노무현 현상” 《사상》 가을호: 80-102.
- 고민희·김창남 (2008) “386세대의 정치적 태도 연구” 《주관성 연구》 17: 23-44.
- 김두섭·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7.
- 김의철·박영신 (2005) “Trust, relationship, and civil society in Scandinavia and East Asia”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33-161.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훈 (2003) “세대와 정치의식” 《한국산업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0.
- 김주엽 (1993) “기업내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 《산업과 경영》 9(2): 43-62.
- 나은영·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24: 3-16.
- 박길성 (2002) “왜 세대인가” 《사상》 가을호: 8-27.
- 박명진 (1995) “정보격차와 세대차이”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아산사회복지재단.
-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 박병영 (2006) “세대와 정치적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논문집》 197-198.
- _____ (2008)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의 정치적 정체성” 《현상과 인식》 101: 81-101.
- 박재홍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가을): 651-683.
- _____ (2005) 《한국의 세대 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나남.
- _____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

- 구학》 33(3): 75-99.
- 배규한·이창호 (200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요약집》.
- 손인수 (1978) 《한국인의 가치관》 문음사.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삼성경제연구소.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통권 81: 35-60.
- 신인수 (1985) “학교 조직 내의 인간관계 개선에 대한 일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영노 (1994) “신세대: 그들의 정치경제”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현실문화연구.
- 안청시·최일섭 (1987)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경제와 사회》 81: 61-88.
- 이경의 (1982)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까치.
- 이기형 (2007) “1990년대의 청년문화 신세대 현상 그리고 문화연구 작업을 돌아
보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5(4): 47-79.
- 이동후 (2009)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세대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보》
23(2): 409-448.
- 이명진·심수진·최셋별 (2006) “가족 관련 정체성에 대한 감정적 의미 비교 연
구: 한국, 중국, 미국의 대학생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110-147.
- 이동원 (1989) “현대사회와 가족” 《대한가정학회지》 27(2): 201-207.
- 이상립 (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 이
동” 《한국인구학》 3(3): 43-73.
- 이인규 (1999)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교단” 《창작과 비평》 27(3) 가을호:
2-199.
- 임희섭 (1984) “사회변동과 세대차의 문제”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현암사.
- 전상진 (2009) “2008년 촛불 현상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
2(1): 5-31.
- 정성호 (2003) “N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의의” 《인문과학연구》 11: 389-413.
- 조대엽 (2002) “한국의 사회운동세대, 386” 《사상》 가을호: 125-147.
- 조동성 (1995) 《21세기 경영 패러다임》 민음사.
- 주은우 (1994) “90년대 한국의 신세대와 소비문화” 《경제와 사회》 21(봄): 70-91.

- 차현희 (2007) “뉴미디어를 통한 가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신세대들의 집단행동” 《정보디자인학연구》 10: 205-216.
- 최선희 (1999) 《정보사회의 소외에 관한연구》 정보통신학술과제.
- 한규석·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남제 (1989) “가구행태와 세대관계의 변화”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가족: 가족의 변화와 전망》 우석출판사, 158-169.
- 한덕웅·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함인희 (1996) 《정보화 사회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연구》 정보통신학술과제.
- 황상민·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황상민·양진영·강영주 (2003)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7-33.
- Acocck A. C (1984) “Parents and Their Children : The Study of Inter-Generational Influenc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8(2).
- Bengtson V. L (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s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58-371.
- Clore G L. and J. Pappas (2007) “The Affective Regulation of Social Interac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4): 333-339.
- Heise D R (2001) “Project Magellan: Collection Cross-cultural Affective Meaning Via The Internet” *Electric Journal of Sociology* 5(3).
<http://www.sociology.org/content/vol1005.003/mag.html>.
- _____ (2002) “Understanding Social Interaction with Affect Control Theory” *New Directions in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in (eds) Berger, Joseph and Zelditch, Morris, J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Heise D R. and S. J. Lerner (2006) “Affect Control in International interactions” *Social Forces* 85(2): 993-1010.
- Inglehart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 Kwang-Hee Jun and Seulki Choi (2010)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 in South Korea Concerning Super-Low Fertility Patterns.” 《한국인구학》 33(2): 85-111.

- Kim, Seokho, Sang-Wook Kim and Ji-Eun Han (2009) "Social Distance between Foreign Workers and Koreans- From Foreign Workers' Viewpoint." 《한국인 구학》 32(2): 115-142.
- Kashima Y., Kashima E., Farsides T., Kim U., Strack F., Werth, L and M. Yuki (2004) "Culture and Context-Sensitivity of Phenomenal Self Differ Across Culture" *Self and Identity* 3: 125-141.
- MacKinnon N. J. and T. Langford (1994) "The Meaning of Occupational Prestige Scores: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35(2): 215-245.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276-320.
- Na E. Y. and Duckitt J (2003) "Value Consensus and Diversity between Generations and Gende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2-63: 411-435.
- Nelson S. M (2006) "Redefining a Bizarre Situation: Relational Concept Stability in Affect Control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9(3): 215-234.
- _____ (2008) "Offender crime perspectives: A Study in Affect control theor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0(1), Ann Arbor, Mich.: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Osgood C. E., W. H. May and M. S. Miron (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yder 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 Schroder T and W. School S (2009) "Affective Dynamics of Leadership: An Experimental Test of Affe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2(2): 180-197.
- Smith H. W., M. Takanori and U. Michio (1994) "How Similar are Impression-formation Processes among Japanese and America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124-139.
- Swell A. A. and D. R. Heise (2010) "Racial differences in sentiments: Exploring Variant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4): 400-41.

The Social Psychological Meaning of Occupation-related Identities among Generations

Yu-Jung Choi · SetByol Choi · Myoung-Jin Lee

This study initiated with the intention to reveal the social consultations and fissur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by indicating occupation-related identities with the concept of social identity supported by theoretic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three dimensions of social identity which are evaluation, potency and activity, there was more generational agreement rather than difference toward occupation-related identities. Among the 44 identities, only evaluation dimensions on minister, congressman, plane captain, farmer and potency dimensions on CEO of a major companies, professor, medical doctor, nurse, celebrity, shaman, unemployed pers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Leader and Professional’, the respondents in their 50's gave high scores in both evaluation and potency dimensions. On the other side, the 30's had negative viewpoints while the 20's and 40's had neutral perspectives. For the potency dimension, the age groups were divided into the 20's, 30's and 40's, 50's; having the younger generations underestimate the potency dimension of such categories. Also for the ‘General Occupation’, 20's and the 30's relatively devaluated with more distinctive degree toward evaluation dimensions. For religion, 20's and 30's were positive toward buddhist monks while the 40's and 50's were more favorable with priests. For the 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lifetime cycle influenced each generations. When performing a two dimensional analysis toward the ‘Leader and Professional’ with evaluation and potency on each axis, the 50's highly evaluated both evaluation and potency dimension of such identities. However, for the 40's, 30's and 20's, the average value fell while the focus of the distribution deepened. The 30's had negative perspective toward the evaluation dimension while the 20's reflected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potency dimension.

Key Words: Generation, Generational difference, Social identity, Occupation, Affect control theory, EPA dimensions